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 표현된 불확정성의 특성과 의미

김순자[†]

상명대학교 패션디자인과

The Expressional Characteristics and Meanings of Indeterminacy in Fashion Illustrations

Soon Ja Kim[†]

Dept. of Fashion Design, Sangmyung University, Seoul, Korea

Abstract : Indeterminacy maintains that the simultaneous measurement of object location and speed is theoretically impossible. This study present indeterminacy as a theoretic tool to interpret a variety of expression characteristics that seem disorderly in recent fashion illustrations; in addition, it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and meaning of indeterminacy as expressed in fashion illustrations. This study reviews concepts and related theories on indeterminacy to examine characteristics of indeterminacy expressed in the arts and fashion; subsequently, indeterminacy characteristics found in fashion illustrations are analyzed. In expressing the fashion figure, indeterminacy finds expression in a distorted figure transformations that include a hybridized combination of heterogeneous forms that dismantle and reconstruct the human body. The hybridized body of combined machines, animals and plants indicates an indeterminate body endlessly transforming itself. Indeterminate space expression finds expression in space expression by projection with the overlapping and juxtaposition of irrelevant constituent elements as well as a space expression from the insertion of unexpected images. An unclarified inconclusive open space provides space with fluidity, causes space expansion and conveys inconclusive meaning. Indeterminate expressions found in fashion illustrations reveal the ambiguity and complexity of a post-modern society with polysemous aesthetic values and the expanded visual concepts of fashion illustrations.

Key words : indeterminacy(불확정성), fashion illustration(패션 일러스트레이션), figure transformation(형태 변형), indeterminate space(불확정적 공간)

1. 서 론

현대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혼란과 다양성의 시대로 현실은 더 이상 고정되고 안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유동적인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능하고 예측 불가능한 특징은 불확정성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현대사회는 사회구조적으로 계층 간의 위계와 경계가 무너지고 수평적 관계로 전환되고 있으며 문화의 영역에서도 절대적인 미와 진리를 추구하는 고전적 가치체계 대신 다양성과 가변성이 수용되며 각각의 영역이 독자성을 수호하기보다 상호 침투하는 현상이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모든 관계를 확정적이지 않고 변화가능한 일시적인 것으로 보는 불확정성은 이러한 현대사회의 특징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현대예술에서도 고전적 의미체계인 확정적 의미론을 바탕으로 한 표현기법 대신 새로운 미적가치체계를 표출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예술작품 또한 문화와 환경의 변

화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고 기능함으로써 불확정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Oh, 1996). 예술작품의 의미가 다의적이고 불확정적이라는 것은 의미해석의 주체를 보는 사람에게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전적인 관점에서는 작품의 의미나 미적 감성은 작가에 의해 전달되어지는 것으로 이해되었으나 불확정적인 관점에서는 작품이 감상자에게 인식되는 과정에서 동일한 방식과 의미로 읽혀질 수 없으므로 해석된 의미도 다의적이다.

포스트모던 패션은 다양화, 개성화, 규범의 해체 등의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객관적 기능성 보다는 주관적이거나 상대적인 표현으로 과격적이고 애매모호한 불확정성을 보이고 있다. 2000년대 이후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표현기법에서도 이전의 구체적인 스타일의 과장이나 단순화 기법의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서 벗어나 비일상적 이미지로 왜곡되거나 비정형적으로 변형되기도 하고 하나의 공간에 다양한 이미지를 제시하여 복잡하고 무질서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표현은 작가가 패션 이미지를 통해 전달하려는 패션 메시지 또한 일관된 의미로 환원되지 않고 다양하고 모호한 의미로 수용된다.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관련 연구들에서는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 표현된 왜곡

[†]Corresponding author; Soon Ja Kim
Tel. +82-41-550-5204, Fax. +82-41-550-5206
E-mail: sonja298@naver.com

된 이미지에 대한 의미를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왜곡된 신체 이미지에 대해서 Choi(2009)는 판타스틱 신체로, Kim(2011)은 사이보그 신체로 Lee(2011)는 기계로서의 신체라는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공간 표현이 합리적인 원근법 공간에서 벗어나 비선형적 공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표현기법 관련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의미 해석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불확정성 이론은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가시적 혼란을 또 다른 차원의 질서로 이끄는 이론적 틀을 제공해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불확정성을 새로운 표현 양상으로 규정하고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인체와 공간 표현에서 비일상적이고 비정형적인 표현에 대한 의미 해석을 불확정성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것이다.

불확정성 표현 특성에 대한 연구는 건축 관련 분야에서 많이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연구에서는 건축에서의 불확정성 표현인 탈정형적, 탈경계적 경향은 1990년대 이후에 지속적으로 고찰되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Kim, 1999; Oh, 1996). 불확정성은 패션에서도 많은 연구에서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의 다원화 체계를 설명할 수 있는 유용한 이론적 근거(Lee, 1998)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데 패션에서의 불확정적 특성이 강조되고 구체화된 것은 2000년대 이후이다(Hwang & Kim, 2012).

본 연구의 목적은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 나타난 불확정성 표현의 특성과 의미를 분석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이 패션이미지와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전달할 뿐 아니라 작가의 경험이나 철학을 반영하고 시대정신을 전달하는 하나의 매체로서 기능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는 문헌연구와 실증적 연구를 통해 이루어졌다. 문헌 연구에서는 불확정성의 개념과 발생배경 및 관련 이론을 고찰하고 포스트모던 미술과 패션에서의 불확정성 표현 특성을 분석하였다. 실증적 연구를 위한 작품은 패션에서의 불확정적 특성이 구체화된 2000년 이후 발행된 패션 및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관련 서적과 작품집 13권에서 선정하였다.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인체의 표현과 인체와 공간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패션 이미지와 패션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러한 개념으로 본 연구에서는 불확정적 표현 특성이 나타난 표현주체의 특성에 따라 인체형태 표현과 공간구성 표현으로 나누어 작품을 선정하였으며 포스트모던 미술과 패션에서의 불확정성 표현 특성을 준거로 인체표현작품 70점과 공간표현작품 66점으로 전체 136점을 선정하고 표현 특성과 효과 및 불확정성 특성과 관련된 미적 가치에 대해 분석하였다.

2. 불확정성의 개념 및 관련 이론

2.1. 불확정성의 개념

불확정성을 의미하는 단어는 ‘uncertainty’와 ‘indeterminacy’인데 물리학에서 처음 사용된 uncertainty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특성을 설명하는데 사용되며 불확실의 의미를 내포한다(Kim,

1999). Indeterminacy는 건축 담론의 불확정성 논의에서 비결정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비결정의 의미는 자유와 선택이 있고 여러 원인이나 동기가 상호보완적으로 참여한다는 의미를 갖는데 단지 애매하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가 아닌 둘 이나 다수 또는 제3자가 개입한다는 의미로 사물을 이것 혹은 저것이라는 양자택일이 아니라 둘 다 혹은 제3으로 설명하는 사유체계이다(Oh, 1996). 따라서 하나의 대상 또는 공간에 대해 불확정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대상 자체가 분별할 수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거나 대상과 대상의 섞임, 관계에 의해 본래 대상의 의미가 다변적, 다의적 성격을 지니게 된다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불확정성은 불확실하다는 의미와 비결정의 의미 모두를 포함한다. 불확실하다는 것은 시각적으로 불명료함과 의미해석의 애매모호함을 뜻하며 비결정의 의미는 확정적이지 않고 의미 해석의 다양성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불확정성의 원리는 1927년 독일의 물리학자 하이젠베르크(Werner Heisenberg)가 어떤 물체의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원리이다. 이 원리는 기존의 결정론적이고 확정적인 과학관에서 벗어난 것으로 동시에 결정할 수 없으므로 특정한 사건을 예측할 수도 없고 다만 사건이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의 개념인 확률만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Kim, 1991). 불확정성의 원리는 전자나 광자 등 눈으로 볼 수 없는 아주 작은 미시세계 현상으로 증명된다. 미시세계에서 한 입자의 물리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입자를 쏘아 보내 돌아오는 입자를 통해 그 입자의 물리량을 계산해낸다. 그러나 그러한 방식으로 입자의 위치는 알아낼 수 있지만 속도나 방향은 바뀌게 된다. 반대로 그 입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정도의 입자는 에너지가 작은 대신 파동이 커서 입자의 물리량을 알아내지 못한다(Shlain, 1993/1995). 즉 미시세계에서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은 동시에 확정된 값을 가질 수 없다는 것으로 입자뿐 아니라 공간 또한 불확정성이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불확정성 이론은 물체와 공간 개념에서 비예측성과 비결정적인 특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제시해 주고 있다.

2.2. 불확정성 개념의 발생배경

불확정성의 개념은 포스트구조주의라는 철학적 인식의 전환과 시간과 공간에 대한 과학적 인식의 전환을 배경으로 대두되었다. 포스트구조주의는 서구의 이분법적 사고방식에 반발하여 기존의 억압적인 권위에 저항하고 영원한 진리의 부재를 주장하며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포스트구조주의 학자들은 절대적 진리, 영원불변한 실재 모든 판단의 근거를 제공하는 원리들에 대해서 부정적이며 그 신념들의 허구성과 모순성을 강조하였다(Kim, 1988). 그들은 기호란 더 이상 확실한 것이 아니며 ‘의미’ 역시 유동적이고 일시적인 ‘유보된’ 상태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따라서 모든 절대적 의미의 근원을 해체하고 해석의 불가능함을 시사하며 모든 결론을 유보시키고자 하였다(Kim, 1994). 데리다의 ‘차연’(difference)의

개념은 이러한 전환된 인식을 제시하고 있다. 차연은 하나의 요소가 다른 요소와의 관계를 통해 기능하거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라는 중립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으로 차별이 되는 동시에 지연이 되는 이중적 개념에 의해 어떤 의미나 진리도 그것이 표현하고자 하는 개념과 완전히 부합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Derrida, 1978).

시간과 공간에 대한 과학적 인식의 전환 또한 불확정성 개념에 영향을 미쳤다. 고전 물리학의 기초가 되어 왔던 절대적 공간과 시간개념은 기하학을 통한 절대적 미의 표현을 추구하였으며 이에 따른 수학적 정리만이 실제의 세계에 대한 정확하고 영원한 진리라고 믿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진리는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의 상대성 이론이 등장하면서 모순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아인슈타인은 움직이거나 정지해 있다는 것은 빠르다거나 늦는다는 것이 상대적 기준 틀에 의한 것이고 공간과 시간이 한가지의 현상인 동시에 에너지와 질량은 같은 사물의 다른 형태라는 사실을 밝혀주었다(Kim & Yoon, 1991). 상대성 이론은 뉴턴의 절대적 시공간의 개념을 상대적 시공간의 개념으로 바꾸었고 새로운 시공간 개념의 탄생으로 유클리드 기하학이 가지는 3차원적 공간의 규율과 규칙은 그 타당성을 잃게 되었다(Hong, 2007). 또한 보어(Niels Bohr)의 상보성 이론(theory of complementarity)은 빛이 입자 또는 파동 중의 하나가 아니라 양자 모두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로써 파동과 미립자의 상호배타적인 측면은 상호 보완적인 측면이 되었다(Shlain, 1993/1995). 이것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들이 동일한 개념의 다른 면들이라는 의미를 제시하며 따라서 모든 체계는 개방성을 가지고 무한히 확장될 수 있고 변화 가능하며 혼합된다는 원리이다(Kim & Yoon, 1991). 이러한 이론들은 기술적 측면뿐 아니라 인간의 의식을 변화시키며 시대의 사상적 흐름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시대 변화의 핵심을 이루어왔다.

2.3. 불확정성 관련 이론

불확정성의 기원이 된 과학 이론 중 관련 연구(Han, 2006; Hwang & Kim, 2012; Oh, 1996)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카오스(chaos) 이론과 프랙탈(fractal) 기하학 이론을 통해 불확정성의 특성을 고찰하였다.

2.3.1. 카오스 이론

카오스의 사전적 의미는 천지 창조 이전의 혼란스러움, 또는 무질서, 대혼란이라는 뜻이며 보편적인 정의는 시스템의 불규칙하고 비예측적인 상태, 무질서와 다양성이 혼재된 현상으로 설명된다. 카오스 운동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복잡하고 무작위적이며 비선형적이다(Kang, 2011). 선형적 분석모델의 경우 변인과 결과가 예측 가능한 비례 관계인데 비해 비선형은 아주 작은 변화가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비선형에서의 결과는 예측불가능이다(Kim & Kim, 2000).

자연에서 보이는 현상들은 거의 모두가 비선형운동이다. 비

선형적 형태란 처음과 끝이 없이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변형하는 역동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따라서 자연현상은 불규칙적이고 복잡하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부정형의 조형개념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외부와 내부의 영향에 따라 가변성을 가지며 많은 요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상호작용하여 예측 불가능한 비일상적 형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카오스 현상은 처음에는 관련 없던 변수들이 갑작스럽게 관여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 가능한 확실성에 근거한다기보다는 우연에 의한 차이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Han, 2006). 그러나 완전히 무질서한 혼란상태가 아니라 불규칙하고 무질서해 보이는 비예측성 신호 이면에 잘 정의된 규칙성이 존재하며 질서와 혼돈이 기묘하게 결합된 세계이다(Kim, 2000). 따라서 카오스 이론은 겉으로 보기에는 무질서하고 불규칙해 보이면서도 나름대로 어떤 질서와 규칙성을 갖고 있는 현상들을 설명하려는 이론이다.

2.3.2. 프랙탈 기하학

프랙탈 기하학은 1975년 수학자 만델브로(Benoit Mandelbrot)가 고안하였는데 프랙탈(fractal)은 부숨(fracture)과 파편(fraction)에서 유래된 조어이다(Moon, 2003). 카오스 이론에서 살펴본 것처럼 자연현상에는 규칙성/비규칙성, 단순성/복잡성, 다양성/일관성 등의 대조적인 특성들이 상호보완적으로 공존하고 있다. 자연 현상의 모든 것이 혼돈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놀라운 질서가 있음을 간파한 만델브로는 자연의 해안선이나 수목의 모양, 산맥, 강의 모양 등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하나의 수학적 모델로서 프랙탈이라는 개념을 제안하였다. 프랙탈의 기본개념은 일부분을 확대해서 보아도 확대된 부분에서 전체의 구조를 다시 찾을 수 있다는 점이며 이러한 성질을 자기유사성이라고 한다(Kim & Kim, 2000). 프랙탈의 또 다른 특징은 무작위성이다. 이것은 반복, 점진, 척도를 불규칙적이고 우연적으로 선택함으로써 해안선이나 산맥 등의 모양을 실제의 것처럼 만들 수 있는 특성이다(Hwang & Kim, 2012). 비선형운동은 수학적으로 풀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는데 프랙탈 기하학은 자연계의 구조적 불규칙성을 기술하고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기하학으로 카오스 현상을 정량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새로운 언어를 제공하고 있을 뿐 아니라(Kang, 2011) 감각적이고 우연적인 역동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조형언어로 무한한 조형적 가능성을 제공한다.

3. 불확정성 표현의 특성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패션의 존재를 전제로 대부분 그림의 방식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표현기법에 있어서 미술과 패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장의 불확정성 관련 이론을 바탕으로 미술과 패션에서의 불확정성 표현 특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3.1. 포스트모던 미술에서 불확정성 표현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서의 표현기법은 그 시대의 미술사조가 반영되어 있으며 미술 표현 양식의 다양한 변화에 따라 새로운 재료와 실험정신으로 독특한 표현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 포스트모던 시대의 미술은 확정적이고 완결된 의미를 갖는 형식을 거부하고 작품을 대중 속에 편입시킴으로써 의미 해석을 대중에게 이양하고 있으며 따라서 작품은 하나의 결정적인 의미로 읽혀질 수 없는 다의적 특성을 갖게 되었다(Aum, 2004). 작가들은 이러한 의미의 다의성과 불확정성 개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창조성과 연결시켜 작품에 반영하고 있다.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표현주체인 인체와 의복을 공간에 배치하여 패션 이미지와 메시지를 전달한다. 따라서 포스트모던 미술에서의 불확정성 표현 특성은 신체 표현과 공간 표현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포스트모던 미술에 표현된 다양하고 왜곡된 신체변형은 복수적 의미 해석이 가능한 의미의 불확정성을 갖는다. 독일의 두 작가 로윅과 뮐러(Lawick & Muller)는 디지털 이미지 합성기법을 통해 신체의 변형과 변화의 자유로움을 드러내고 있다(Deitch, 1992). 그들의 <perfectly super natural series>는 비너스, 아폴로, 아프로디테와 같은 그리스 조각의 얼굴들과 백인 이외의 인종의 평범한 얼굴을 합성한 작업이다. Fig. 1은 비너스의 얼굴에 여성의 얼굴을 무작위로 합성하여 다양하게 변형된 얼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얼굴들은 확정되지 않은 채 우연적인 교배를 통해 새로운 얼굴, 새로운 이상형으로 환생해나간다. 이것은 고전적으로 이름답다고 여겨진 이상적 이미지들과 낯선 타인의 얼굴들을 교배시킴으로써 모호한 정체성을 보여

주며 다양한 뿌리에서 선택된 정체성들이 서로 혼합되고 결합된 다중 복수 정체성을 보여준다. 또한 로버트 글리고로브(Robert Gligorov)는 Fig. 2와 같이 자신의 피부를 오렌지 껍질로 바꾸어 표현하고 있으며, 매튜 바니(Matthew Barney)는 퍼포먼스 비디오 <Cremaster series>에서 반인반수의 하이브리드 괴물로 등장하였다(Fig. 3). 그들이 작품에서 나타내는 비정형적 혼성신체는 정상/비정상의 경계를 벗어나 지속적으로 변형되고 재구성되는 신체개념의 확장을 보여준다(Riemschneider & Grosenick, 2000). 이러한 이질적 결합에 의한 혼성체는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불확정적 신체를 보여주며 기존 관념에서 탈피한 변형에 의한 표현들은 미와 추의 경계가 모호한 불확정성을 보인다.

또한 포스트모던 미술에서의 공간 구성은 전통회화의 재현적 원근법으로 표현되는 공간 구성과는 다른 맥락을 가지고 있다. 재현적 원근법에서의 이미지가 맥락의 질서 속에서 통일된 관계를 획득함으로써 의미의 일관성을 갖는다면 포스트모던 미술에서의 이미지는 상호 침투되거나 무질서하게 혼성되어 고정되어 하나의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닌 복수적인 의미해석이 가능한(Lee, 2005a) 의미의 불확정성을 표출한다. 데이비드 살르(David Salle)의 Fig. 4 작품에서 무작위로 선택된 이미지들은 무질서하게 중첩되거나 병치되어(Fuchs, 1992) 전체적으로 통일된 회화의 구성을 관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그림에서 관람자들은 각각의 이미지에서 이미지로 건너뛰듯이 이동하여 대상을 지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시선의 흐름은 이미지를 시각적이 아닌 촉각적으로 지각하게 만든다. 또한 무질서하고 복잡한 드로잉 선은 그림의 내부 안쪽의 공간을 확장함으로써 하나의 공간이 아닌 다중적이고 복합적인 공간을 보여주고



Fig. 1. Lawick & Muller <Venus de Miro>. <http://www.eklablog.com>



Fig. 2. Robert Gligorov <Orange face>. <http://prologue.blog.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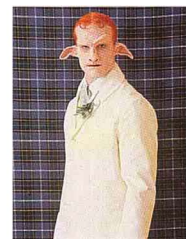


Fig. 3. Matthew Barney <Cremaster series>. *Art at the turn of the millennium (2000), p.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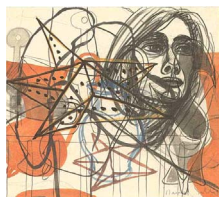


Fig. 4. David Salle, <Untitled, 1991>. *David Salle drawing (1992), p.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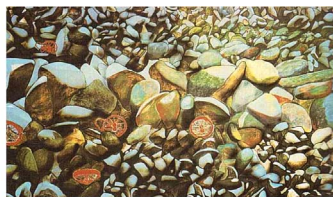


Fig. 5. Francesco Clemente, <Untitled, 1984>. *Art of the 20th century (2000), p. 378.*

있다(An, 1998). 돌맹이들이 널려있는 어느 시냇가의 풍경을 그린 Fig. 5의 프란체스코 클레멘테(Francesco Clemente)의 작품에서는 유심히 살펴보면 사실적으로 그린 돌맹이들 사이에 붉은 색 바퀴들이 어울리지 않게 우연적으로 삽입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Riemschneider & Grosenick, 2000). 엉뚱하게 삽입되어 작품의 이미지를 방해하는 것 같은 이러한 형태들은 또 다른 주체를 상징함으로써 작가가 의도한 주제로 연결되는 이미지들 이외에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부여한다. 이러한 작품에서 주체는 모호하게 표현되어 관람자들은 그것이 지시하는 의미를 찾기가 쉽지 않아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되고 따라서 주체의 의미는 불확정적이 된다.

포스트모던 미술에서의 신체 표현의 불확정성은 이질적 혼성결합에 의한 비정형적 신체 표현을 통해 고정되고 확정된 의미의 신체가 아닌 지속적으로 변형되고 재구성되어 진화하는 새로운 창조물을 생성하는 불확정적 신체로 나타난다. 공간 표현에서는 합리적인 원근법 구성에서 벗어나 이미지의 무질서한 중첩과 병치에 의한 구성이나 우연적이고 돌발적인 이미지를 통해 주체에 대한 의미해석을 불가능하게 하여 다양한 의미해석을 통해 불확정성을 표출하고 있다.

3.2. 포스트모던 패션에서 불확정성 표현

포스트모던 패션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불확정성을 포스트모던 패션의 특성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으며 불확정성 표현에 집중하여 구체적으로 연구한 것은 Lee(1998)와 Hwang and Kim(2012)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들을 중심으로 패션에서의 불확정성 표현의 조형적 특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Lee(1998)는 불확정성 표현의 외적 특성을 변형성, 모호성, 비합리성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변형성 표현은 형태 변형, 스케일의 변형을 통한 균형체계의 파괴로 표현되며 이러한 변형은 기존의 복식 관념과 형태에서 벗어나 미와 추의 경계가 모호한 불확정성을 보여주고 있다. 모호성은 관련 없는 요소들을 모순되게 병치시켜 다의적이고 모호한 의미를 부여하며 비합리적 구조는 구성의 미완성, 구조적 불일치, 안과 밖의 해체, 착시 등을 통해 보여 진다. 이러한 표현은 시각적 복잡성과 모호성을 나타내며 미적 규범을 파괴하고 우연적 효과를 통해 불확정성을 드러낸다.

Hwang and Kim(2012)의 연구에서는 불확정성을 비정형성, 비물질성, 무작위성, 복잡성, 가변성으로 제시하고 있다. 비정형성은 무정형의 비결정적 형태, 추상적인 자유조형형태, 왜곡된 변형의 형태로 나타난다. 비물질적 요소는 공간 간의 구분을 불분명하게 만들어 대상의 물질감을 없애는 것으로 투명소재의 사용으로 상호공간의 침투와 내부와 외부의 공간감을 와해시키고 모호한 시공간 개념을 통해 물질 존재의 절대성을 부정한다. 무작위성은 우연적이고 의외의 구성으로 예측할 수 없는 구조로 나타난다. 이것은 전통적인 의복 질서가 파괴되어 기대를 전복시킴으로 불확정적인 미를 제시한다. 복잡성은 서로 이질적인 것들이 하나로 얽혀 있는 상태를 말하며 비계획적이고 우연적으로 조합되어 무질서, 부조화, 불연속의 형태로 보여 진다. 가변성은 착용자가 개입되어 완성시키는 열린 사고로서의 패션을 의미하며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형태 변형과 제작 과정을 노출시키거나 불완전한 미완성의 형태를 재현하는 데 이것은 의복의 완결성을 부정하는 불확정적 의미를 담고 있다.

<p>chaos theory</p> <p>irregularity randomness complexity disorder accidentality non-linearity unpredictability changeability</p>	<p>arts</p>	<p>body</p> <p>- atypical body transformation - heterogeneous hybrid body</p>	<p>accidentality changeability randomness</p>	
		<p>space</p> <p>- disordered overlapping and Juxtaposition - accidental and heterogeneous image</p>	<p>disorder randomness complexity accidentality unpredictability</p>	
	<p>fractal geometry</p> <p>self-similarity irregularity randomness non-linearity accidentality unpredictability</p>	<p>fashion</p>		<p>complexity randomness changeability accidentality</p>
		<p>figure</p> <p>- atypical and distorted figure transformation - transformation of scale - transformation by technology - unfinished figure</p>	<p>non-materiality complexity accidentality unpredictability</p>	
		<p>space</p> <p>- penetration of mutual space - deconstruction of inner & outer space - accidental and unexpected space</p>		

Fig. 6. Expression of indeterminacy in arts and fashion designs.

이러한 연구에서 제시하는 포스트모던 패션에서의 불확정성 표현은 형태적으로는 비정형적이고 왜곡된 형태 변형과 이질적이고 우연적인 조합이나 미완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구성적으로는 불합리하고 우연적인 방법과 내 외부 공간의 해체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표현을 통해 기존의 미적 개념과 시공간 개념을 파괴하고 시각적 복잡성과 의미적 모호성으로 불확정성을 표출하고 있다.

4.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서의 불확정성 표현

4.1. 인체 표현의 불확정성

포스트모던 미술에서의 신체 표현의 불확정성은 이질적 혼성결합에 의한 비정형적 신체를 통해 표현되었으며 포스트모던 패션에서는 비정형적이고 왜곡된 형태 변형과 이질적이고 우연적인 조합이나 미완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Fig. 6). 이러한 포스트모던 미술과 패션에서의 불확정성 표현특성을 준거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서의 불확정적 인체 표현을 이질적 형태 결합, 비정형적 형태 변형으로 분류하였다. 실증적 작품은 Choi(2009), Kim(2011), Lee(2011) 연구에서 제시된 왜곡된 신체 이미지를 참고로 이질적 형태 결합, 비정형적 형태 변형으로 표현된 작품을 선정하여 구체적인 특성과 표현 효과를 분석하였다.

4.1.1. 이질적 형태 결합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인체 표현에서 이질적 형태 결합은 인체와 동식물, 인체와 사물, 인체와 기계의 결합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며 우연적으로 선택되고 조합되어 하나의 독특한 형상으로 표현되고 있다. Fig. 7은 인체에 동물의 얼굴 형태를 결합하여 인간과 동물의 혼성체로 표현하고 있으며 Fig. 8은 인간과 동물의 형상을 겹치게 하여 현실과 환상이 병치된 것 같은 형상으로 모호한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다. Fig. 9는 인체에 기계이미지를 결합시켜 기계생명체로 표현하고 있는데 인체와 기계부품으로 이루어진 이러한 가상신체는 테크놀로지와 융합과 공생을 통해 신체 능력을 확장시키고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불확정적 신체를 나타낸다. 이러한 혼성체들은 인간도 동물도 기계도 아닌 가상현실 속 이미지이다. 가상공간에서 인체는 자연과 융합하기도 하고 물체와 합체하기도 하며 동물의 형

태로 변신하기도 하고 기계와 결합하기도 한다. 이렇게 창조된 혼성체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모호한 정체성을 갖고 있으며 단순히 이질적 형태를 표현하는 것을 넘어서 근본적으로 기존의 질서체계와 전통적 인간 개념을 벗어난 비정상적 돌연변이이며 부적절하고 불안정한 불확정적 존재이다(Bae, 2009). 이러한 비상식적인 결합은 개체 간의 탈경계적 사고에 의해 형성되며 우연적 형태는 상상적 무질서를 통해 고정되고 경직된 시각에서 벗어난 자유조형의지를 표현한다.

이질적 형태 결합에서 두개의 형태는 서로 혼용되어 그 의미를 변용시켜 버리므로 사물 본래의 모습은 숨겨져 모호하게 되고 이러한 모호성은 의미적 측면에서 불확정적 은유의 개념으로 이해된다. 또한 현실감이 부족한 형상은 이미 지각하고 있는 경험적 이미지를 뒤엎고 기억에 익숙한 사물의 원래 위치와 관계에서 분리 이동시켜 낯설게 전환함으로써 지각자의 인식 결정을 유보시켜 의미의 불확정성을 유발하고 있다.

4.1.2. 비정형적 형태 변형

변형(transformation)은 물체의 형태나 구조를 바꾸는 것으로 사물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지 않고 작가의 미의식에 따라 변화되어 나타난 형태이다. 비정형은 정형을 부정하는 추상적인 자유 조형 형태로 비구조적이며 모호한 형태 특성을 갖는다.

4.1.2.1. 왜곡 변형

왜곡은 모양이 찌그러진 상태, 상의 뒤틀림이나 일그러짐을 뜻하며 왜곡의 의미인 아나모르포시스(anamorphosis)는 정상적인 이미지를 나타낸 그림이 곡선형 거울에 비치거나 어떤 다른 지점에서 바라볼 때 바뀌는 사물의 이미지를 뜻하는 그리스어이다(Lucie-Smith, 1995). 또한 심리적 의미의 아나모르포시스는 두 개 이상의 이미지가 중첩되거나 증폭되어 작용하는 것으로 형을 재배치하여 끝없이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이다(Park, 1999).

따라서 왜곡된 변형은 특정 부분의 생략 반복을 통해 이루어지거나 특정 형태의 위치나 방향 전환, 부분과 부분의 모순된 결합으로 가능하다. 왜곡된 형상은 기존의 미적 개념을 전복한 파괴적인 형태이며 반 미학을 통한 새로운 미학으로 새로운 미적 가치를 추구하고 새로운 형상을 창조하는 것이다.

Fig. 10은 자유로이 분리되고 해체된 신체를 실체가 없는 탈



Fig. 7. Joanna Pertl. Mode illustration (2013), p. 43.



Fig. 8. Karen Oxman. Illustration now (2008), p. 247.



Fig. 9. Kenzo Minami. Fashionize: The art of fashion illustration (2005), p. 40.

정형적 형태로 재구성하고 있는데 다양한 곳에서 가져 온 불완전한 이미지 단편들을 하나의 인체에 결합시켜 새로운 인체를 만들어내고 있다. 배합보다는 과편화된 구성방법을 사용하며 앞뒤가 맞지 않은 요소들로 이루어진 패치워크처럼 보인다. 단편적 형상들은 서로간의 단절과 대립에 의한 불완전함을 도출하고 있으며 균형과 대칭의 속박에서 벗어나 비틀리고 왜곡된 모호한 인체를 재창조한다. 이것은 상이한 구성요소들이 우연히 결합하면서 전혀 다른 것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새로운 형태를 창출하려는 가변성과 불안정성의 형태변이이다. 이러한 형상은 끊임없이 증식하는 무정형의 생명체를 연상케 하는데 상호결합의 과정을 통해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복잡하게 변형 될 수 있는 비결정적 상태로 불확정적으로 존재하게 된다. Fig. 11은 남자와 여자의 형상이 겹쳐져 비실체적이고 추상적인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타자화를 통해 탈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새로운 정체성 또는 정체성의 초월적 의미를 제시한다. 유동적이고 무질서한 선과 색채는 시각적으로 불확실하고 모호할 뿐 아니라 의미도 단일하지 않다. 이것은 신체라는 형상 자체로부터 외부로의 확장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기 때문에 무한한 변화가 가능하며 모든 신체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고정적이지 않고 변형 가능한 초신체로서의 유동성을 표현하는 것이다. 즉 새로운 인간화 과정을 통해 인간의 다르게 되고자 하는 혹은 돌연변이가 되고자 하는 욕망을 표현하는 것이다(Levy, 1995/2002).

이질적인 혼성들은 모호한 형태를 만들고 비선형적 불연속

으로 형태변이를 추구하며 이러한 형태변이는 끝없이 다양한 형태들이 이어진다는 점에서 불확정적 의미를 갖는다. 또한 경계를 와해한 완전한 열린 구조를 지향하는 탈구조적인 형태로 일정한 형태를 추구하기 보다는 고정된 형태들을 해체하여 무한히 재변형하는 것이다.

이질적인 것들이 하나로 엮힌 이러한 복잡한 상태는 시선을 '방종한 추적'으로 이끌어(Shiner, 2003) 불확정적 의미를 전달하며 개별성들이 해체되고 주관적 가치에 따라 삭제 중첩 조합되어 가변적이고 다원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4.1.2.2. 변환과 변성

변환은 경향이나 상태가 바뀌는 것에 의해, 변성은 성질이 달라지는 것으로 인해 형태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의미한다(Donga Korean dictionary, 1995). 변환과 변성은 변형과 같이 물체의 형태나 구조를 바꾸는 것이지만 조형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변형과 달리 사물의 변성을 가져오는 전이 전도의 방법이다(Park, 2007). 변성의 의미인 메타모르포시스(metamorphosis)는 사물이 본래 갖고 있는 성질을 상실하는 지점에 이르러 하나의 이미지가 엉뚱하게 다른 이미지로 바뀌어 심적 에너지의 이동을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Bradley, 1997/2003).

Fig. 12는 의복을 나무의 재질로 변성시켜 표현하고 있는데 맥락과 무관한 이질적 재료의 비구조적 단편들로 구성된 비정형적 형태는 이질적 재료로 인해 비정형적 특성과 모호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Fig. 13은 다양한 색과 형태로 변환된 얼굴



Fig. 10. Maren Esdar.
Wonderland (2005), p. 98.



Fig. 11. Julien Kurtin.
Mode illustration (2013), p. 239.



Fig. 12. Lucia Blanco.
Young fashion designer (2007), p. 134.



Fig. 13. Sonya Suhariyan.
Big book of fashion illustration (2007), p. 90.



Fig. 14. Bil Donovan.
New icons of fashion illustration (2013), p. 55.



Fig. 15. Karen Illiya.
Ilustracion de moda. (2007), p. 115.

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는데 신체의 자유로운 수정과 변환을 통해 사회적 관념에 의해 확정되고 고정된 정체성을 거부하고 유연하고 불확실한 정체성을 보여준다. 또한 Fig. 14는 부분적인 생략을 통해 형태를 모호하게 표현하는데 형태를 완전하게 없애거나 가리는 것이 아니라 부분은 드러나게 하여 전체를 짐작하게 하는 것이다. 즉 이미지의 일부만 보여주고 감상자가 이미지를 완성시키도록 비결정의 여백을 주는 것이다. Fig. 15에서는 이미지 구성 요소를 물감의 번진 형상으로 가려서 주체의 이미지를 감추고 있다. 이것은 인체를 비물질화 하여 비실체적이고 모호한 이미지로 표현하는 것으로 형태의 요소를 모호한 색의 유희로 은폐하여 시각적 자극과 화면에 긴장감을 부여하고 있다. 생략하여 알 수 없게 하거나 이미지를 흐리게 하는 이러한 표현은 명백한 이미지에 의한 의미 해석을 지연하거나 불가능하게 하여 이미지의 자율성을 확보해주는 동시에 다양한 의미해석의 가능성을 내포한다. 모호함은 사실적인 것에 대해서 표현성이 배제됨으로써 의미의 전달력이 제거된 것이며 이러한 의미의 불확정성은 은유적 연상의 부재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이것은 애매한 형태가 부여되었을 때는 확실한 의미를 취하기 어렵고 따라서 자기 본위로 의미를 취하게 되기 때문이다 (Oh, 1996). 또한 혼돈스럽다, 애매모호하다는 것은 관습적인 인식방법을 벗어나 주관적인 인식 작용과 경험을 통해 이루어진다. 변환과 변성은 사물이 실제 배치에 의해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고 주관적 배치에 의한 자율적 이미지에 의해 형성된다.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서의 이질적 형태 결합이나 왜곡된 변형과 비밀상적인 변환과 변성은 전통적인 구조들 간의 비율을 일탈하려는 균형체계의 파괴이며 대상에 대한 고정된 시각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열린 사고를 보여준다. 또한 형태의 우연적인 발현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가능성을 추구하는 것이며 비현실적인 이미지는 상상적인 결합에서 오는 새로운 세계의 표현이다. 외형적으로는 무질서, 부조화, 불연속적인 비선형적 형태로 복잡성을 표출하며 비계획적으로 조합됨으로써 일체성과 통일성을 거부한다. 무작위적 구조는 구성 요소간의 외외의 구성으로 있어야 하는 곳에 대한 기대를 전복시킴으로써 불확정적인 미를 제시하며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확대하고 의미의 연상 작용을 자극함으로 모호성을 유발시킨다. 또한 최근의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서는 주체인 인체의 실체를 약화시키거나 제거하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하여 그 의미를 축소시키고 이미지의 일부분을 보여줌으로써 작품이 미완성의 상태인 것처럼 제시되는데 이러한 표현은 수용자의 자의적인 해석을 유도하여 감상자에 의해 이미지를 완성시킨다. 따라서 수용자 개인에 의해 개별화된 다양한 이미지가 완성되며 하나의 기표가 다중 기표로 전과되어 의미를 불확정성으로 전달한다.

4.2. 공간 표현의 불확정성

포스트모던 미술의 공간 표현에서는 합리적인 원근법 구성에서 벗어나 이미지의 무질서한 중첩과 병치에 의한 구성이나

우연적이고 돌발적인 이미지를 통해 불확정성을 표현하고 있으며 포스트모던 패션에서는 불합리하고 우연적인 구성과 내외부 공간의 해체를 통해 불확정적 공간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불확정적 공간 특성을 준거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공간구성에서 불확정성 표현을 중첩과 혼성에 의한 다중 공간 표현과 무질서한 비선형적 이미지와 우연적이고 돌발적인 이미지 구성에 의한 비합리적 공간표현으로 제시하고 특성을 분석하였다. 공간 표현에서는 Park and You(2003) 연구에서의 불합리한 원근 표현, Sung(2004)의 연구에서 전통적 원근법의 일탈과 구도개념의 일탈로 제시된 작품들과 Lee(2009)의 연구에서 제시된 다중원근법 작품들을 참고로 선정하였다.

4.2.1. 다중 공간 표현

다중 공간은 두 개 이상의 장면이 하나의 시각적 체계를 통하여 합성 또는 중첩되어 형성된 공간을 의미한다(Lee, 2009). 다중 공간 표현은 대상이 동시에 둘 또는 그 이상의 공간에 존재한다는 동시성의 개념과 하나의 공간에 다중의 상을 투여함으로써 지속적인 의미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개념으로 불확정성을 표현한다.

4.2.1.1. 중첩과 투영에 의한 공간

중첩은 하나의 단위가 그 위에 있는 다른 단위를 부분적으로 가릴 때 생기는 효과로(Arnheim, 1974/1996) 중첩공간은 동시성의 개념으로 불확정성을 표현한다.

Fig. 16에서는 다양한 이미지들이 불투명성을 기반으로 입체감이 없는 듯 무작위로 중첩되어 각각의 대상이 속한 이질적 공간을 서로 연계시킨다. 이러한 공간구성은 형태적 상황적 연관성이 모호한 두 개 이상의 이미지가 한 화면에 동시에 결합하게 됨으로써 무질서가 공존하며 시각적 혼란 속에서 관찰자에게는 의미의 모호성을 부여한다. 또한 각각의 형은 다른 것 위에 포개져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가려진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깊이의 착각을 일으키게 된다. 중첩의 개념에서 만일 하나의 공간 형태가 다른 형태를 가려서 볼 수 없게 되면 우리는 뒤에 가려진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중첩된 공간에서는 보여 지는 것과 보여 지지 않는 것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대상에 대한 무한한 상상력을 제공하고(Kim, 1999) 의미의 불확실성과 비결정성으로 불확정성을 내포하게 된다. 이러한 공간 구성에서 중첩에 의한 형태는 의미 없는 특이성에서 의미심장한 복잡성으로 변화되며 또한 중첩에 의한 충돌이 있을 경우 변화와 긴장으로 인한 생동감과 역동성을 유발시킨다.

투영은 대상을 가로지르는 가시적 공간 전달 체계로 투영에 의한 공간은 대상에 투명감을 부여해 이미지들을 서로 겹쳐 보이게 함으로써 모호한 공간감을 만든다(Lee, 2004). 투영에 의한 공간은 겹쳐진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효과를 전체로 만들어지며 동시 시각에 따른 이미지 인식을 유도하여 통합적 인식을 통해 새로운 이미지를 창조한다. Fig. 17은 대상들의 겹치는 부



Fig. 16. Ho Calvin.
Fashion wonderland (2007b),
p. 229.



Fig. 17. Molly Grad.
Fashion illustration by fashion
designer (2008), p. 131.



Fig. 18. Julie Verhoeven.
Fashion illustration next (2004),
p. 169.



Fig. 19. Container.
Wonderland (2004),
p. 61.

분을 투명하게 표현하여 각각의 대상이 속한 공간을 혼성하여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투명한 이미지들은 비경계성, 상호침투성을 가지며 따라서 모든 이미지들은 서로 경계 없이 섞여서 존재하는데 형태, 공간, 오브제 등이 서로 투명하게 중첩되면서 생기는 이러한 시각적 현상을 상호 관입이라 한다(Lee, 2005b). 상호 관입으로 인해 공간에는 연속성이 부여되고 여러 형태들의 겹침은 공간의 깊이를 느끼게 하며 다양한 스케일감을 주어 역동성이나 유동성을 느끼게 한다. 그림에서처럼 면이나 형상들이 서로 맞물리면서 공유되는 공간을 만들기도 하고 두 개의 공간이 만나 한 공간으로 합쳐지기도 하며 합쳐진 공간의 일부가 될 수도 독립된 공간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공간은 무한히 확장되는 불확정적 공간을 창출한다.

투명성은 공간의 피막을 제거함으로 공간의 이미지들이 마치 질량을 지닌 물질이 아닌 것처럼 느끼게 한다. 이는 물질의 모호한 시공간의 개념을 통해 물질존재의 절대성을 부정하는 것이며 이러한 비물질성은 공간과 공간의 구분을 불분명하게 만들뿐 아니라 실체와 비실체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여 물질화된 공간에 비해 더 풍부한 감정을 가지게 한다. 또한 투명성은 있음과 없음이 등가로 되는 것으로 공간적으로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것을 동시에 지각할 수 있으며 투명한 형태는 각각의 형태를 가까운 것으로도 볼 수 있고 멀리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모호한 이중성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공간은 다의적인 공간(equivocal space)이 된다(Lee, 2006).

4.2.1.2. 복합 공간

복합 공간은 다수의 시점과 상황이 공존하는 공간이다(Lee, 2009). 이러한 공간은 하나의 공간을 분할하여 또 다른 공간을 형성하고 각각의 대상이 속한 공간을 혼합하여 혼합과 대비를 통해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며 확장된 공간 개념에 의한 새로운 공간을 형성한다. Fig. 18은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인체 이미지를 제시하고 인체의 머릿속에 또 다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의 공간에서 전체를 지각한 후 또 다른 장면이 보여지게 하는 방법으로 동일물로 이중 내지는 다중의 효과를 만드는 방법이다. 또한 Fig. 19에서는 서로 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여러 상황을 한 화면 안에 배치하여 모호한 상황을 연출하

고 있다. 이러한 구성은 각기 다른 상황의 상호작용에 의해 새로운 의미 생성의 가능성을 부여하여 가변성과 다의성의 불확정적 공간이 된다.

화면에 두 가지 이상의 의미 있는 상황이 혼성되어 보여지는 이러한 구성은 중심적 구조를 탈피하여 주제와 배경이 분리되지 않은 채 공간관계가 애매하며 모호한 공간 개념은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여 주목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4.2.2. 비합리적 공간 표현

비합리적 공간은 작품에 사실적인 깊이의 공간을 제공하는데 절대적인 법칙으로 여겨졌던 원근법을 사용하지 않으며 이미지들 사이에 통일적인 질서가 사라진 공간을 의미한다.

4.2.2.1. 비선형적 공간

비선형적 공간은 질서와 규칙성이 배제되어 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운 복잡한 공간을 말한다. 중심적 구성은 질서가 있는 구성이며 질서는 단순성을 추구하고 애매성을 배제한다(Arnheim, 1966/1984). 반대로 복잡성은 공간을 구성하는 각 부분 간의 관계가 다양하다는 것을 말한다.

Fig. 20에서는 서로의 연관성을 알 수 없는 다양한 이미지 형상들이 여기 저기 던져 놓은 것처럼 구성되어 있다. 원근법적으로 설정된 하나의 장면이 아니라 복합적 관계로 설정된 모자이크 같은 표현으로 다양한 이미지들이 무질서하게 나열되어 있다. 이질적인 요소들의 충돌로 인해 우연성을 발생시키며 다양한 방향성과 다양한 이질성을 통합하고 흡수하여 복합적이고 무질서한 공간을 창조한다. 이러한 탈중심적이고 무질서한 복잡한 공간은 지배적인 구조나 주제가 없어 중심적 지배구조에 의한 위계적 구조를 갖지 않으며 확정 가능한 결정적인 형태나 질서의 해체를 의미한다(Kim, 2006).

비일관성과 어울리지 않는 이미지들의 배합으로 전체적으로 통일된 구성을 관조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관객들은 각각의 이미지에서 이미지로 건너뛰듯이 이동하여 대상을 지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시선의 흐름은 이미지를 시각적이 아닌 촉각적으로 지각하게 만든다. 비선형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이러한 이미지들은 분명한 패션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하고 주



Fig. 20. Deanne Cheuk.
Ilustracion de moda (2007), p. 158.



Fig. 21. Green Studio.
Fashion unfolding (2007a), p. 214.



Fig. 22. Gibb Kate.
Fashion illustration next (2004), p. 68.

체의 의미가 해체되어 의미 해석을 불확정적이고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

4.2.2.2. 이미지 병치

병치에 의한 공간은 대상들을 하나의 평면에 제시하는 역원근법으로 화면의 구도가 사라지고 초점이 분산된다(Park & You, 2003). Fig. 21은 서로 다른 시점, 서로 다른 시야의 대상을 관찰하여 얻은 결과를 한 작품에 구성하고 있는데 한 화면 속에 동시에 여러 초점이 생겨나게 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동시적 성격을 띤다. Fig. 22에서는 하나의 장면 안에 순차가 모호한 분절된 이질적 시간들의 이미지를 담음으로써 관찰자가 이미지들을 수평 수직으로 상호 연계시키며 주관적이고 다의적인 이야기를 만들고 이해하도록 유도해낸다. 이러한 공간은 수직적으로 작용하는 중력에 반하는 탈 중력 공간으로 기존의 원근법적 질서를 이탈하고 지속적으로 움직임을 지향하며 유동성을 드러낸다. 또한 이미지들을 단편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이미지와 이미지 간의 우연적 상호연계성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창조한다.

이러한 공간에서는 공간 속에 여러 요소들을 변형 배치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장시키며 따라서 의미는 불확정적인 상태로 남게 되고 완결된 하나의 의미로 읽혀질 수 없는 다의적 성격의 모호함으로 존재하게 된다.

4.2.2.3. 돌발적 이미지 삽입

돌발적 이미지는 엉뚱하게 등장하여 전체 이미지와의 조화

를 깨고 의미해석에 혼란을 주는 의외의 형상을 말한다.

Fig. 23에서는 그림의 아래 부분에 어울리지 않게 해골의 이미지가 삽입되어 있다. 전체 이미지와 관련 없이 등장한 예측 불허의 해골 이미지는 주제와 배경의 위계질서를 깨고 시각적 자극과 긴장감을 부여한다. 이것은 은폐됨으로써 기능하는 어떤 의미화 작용을 감추고 있는 것으로 또 다른 의미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Fig. 24에서는 예기치 않게 등장한 여러 개의 손 이미지가 전체 그림의 공간 경계성을 배제시키면서 애매한 공간 개념을 보여준다. 고정되거나 확정된 장소를 확인할 수 없고 공간 속에 정지해 있는지 움직이고 있는지 결정할 수 없이 공간 감각을 혼란시키고 있다. Fig. 25는 화면을 둘로 나누어 채색 화면과 흑백 화면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두 화면 사이에 갑자기 등장한 악어의 형상은 두 화면을 이어주기도 단절시키기도 하면서 시각적 감각적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돌발적 이미지는 주제보다 더 강하게 시선을 사로잡게 되는데 이때 주체는 분열하여 또 다른 주체가 생겨나며 이렇게 생긴 주체는 확정적이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불확정성을 띄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형상들은 단순히 들어간 무의미한 단편이 아니라 의미가 불확실한 비결정적 형상이며 의미 해석의 범위를 확대시켜 또 다른 의미 해석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다중공간과 비합리적 공간은 예술작품에 사실적인 깊이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절대적인 법칙으로 여겨졌던 원근법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그 절대적인 시선의 위치도 폐기되어지고 그에 따라서 이미지들 사이의 통일적 질서가 사라지며 주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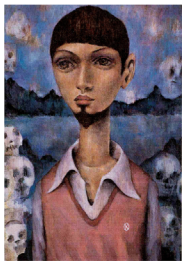


Fig. 23. Koji Ota.
Fashion illustration next (2004), p. 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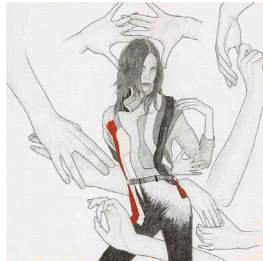


Fig. 24. Chalse Anastase.
Fashion illustration next (2004), p. 13.



Fig. 25. Siegel Baum.
The big book of illustration (2008), p.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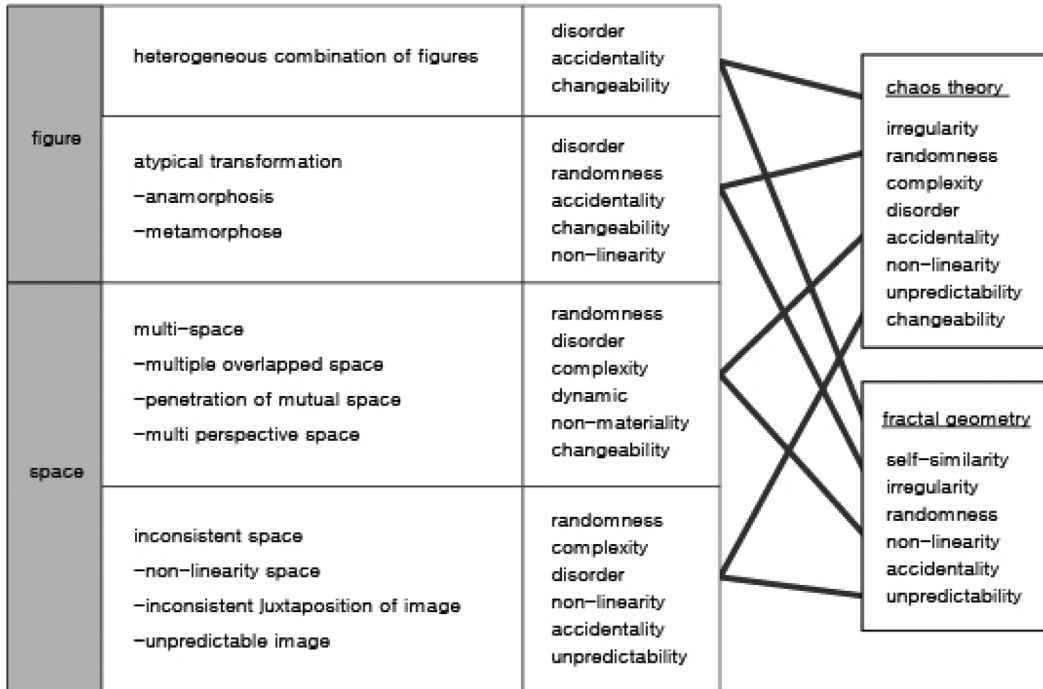


Fig. 26. Indeterminacy expression of figure and space in fashion illustration.

배제된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공간은 기존의 중력에 역행하는 공간 경험을 만들어내며 원근법적 공간으로부터 모호해진 카오스 공간으로 나아간다. 카오스 공간에서는 기표와 기의가 흩어지는 산중이 일어나는데 산중된 텍스트들은 무한한 대상과 치환시켜 지속적으로 의미를 재생산하게 된다.

이러한 공간 표현은 공간에 대해 우리가 지각하고 있는 사실과 엇갈리게 표현함으로써 불확정성을 표출하고 시각적 흥미를 자아낸다. 또한 시각적 효과뿐 아니라 새로운 소통 체계를 추구하고 확정적이지 않은 해석의 가능성을 제공한다.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서 공간 표현은 이처럼 다양한 성격을 갖는 복합적이고 상대적인 공간 표현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이러한 공간에서 공간과 형상의 관계는 더 이상 단순하고 고정적인 관계가 아니라 복잡하고 유동적인 관계를 제시하고 있으며 서로 간에 끊임없는 영향을 미치고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양한 의미해석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불확정성을 내포한다. 이러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서는 전달하려는 명확한 패션 메시지를 찾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작가가 이러한 작품을 통해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의 불확정성이다.

5. 결 론

현대의 문화가 복잡하고 다원적인 성격을 띠는 혼란한 상황에 이르면서 형태나 공간의 인식에 있어서도 한가지만으로는 규정되지 않는 모호한 현상으로 다가오고 있다. 절대적인 가치 체계나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며 각각의 사물이나 현상들이 갖

고 있는 가시적인 일차적 의미에서 벗어나 상호작용에 의해 각기 다른 의미로 해석되고 기능함으로써 포괄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불확정적 개념을 갖게 된 것이다.

본 연구는 포스트모던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불확정성을 시각예술에서의 새로운 표현양상으로 규정하고 최근의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서의 탈정형적이고 탈 경계적인 표현에 대한 의미 해석을 불확정성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서의 불확정성 표현은 인체형태 표현과 공간구성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형태나 공간을 불확정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시각적으로 불확실하거나 분별하기 어려우며 모호한 특성을 갖는 것이며 의미적으로는 애매모호하여 하나로 확정하거나 결정하기 어려워 해석하는 관찰자의 자율적 해석에 따라 다변적 다의적 성격을 지니게 되는 특성을 보이는 것이다.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서의 인체 표현은 인체와 동물이나 기계 등의 이질적인 형상을 결합시키거나 인체의 형상을 비정형적으로 변형, 변성시킴으로 끊임없이 변화 가능성을 내포하는 유동적 신체로 표현되고 있으며 수용자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한 다의적 의미해석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공간구성에서는 다중공간과 비합리적 공간으로 불확정성을 표현하는데 이러한 공간 구성에서는 원근법적 구성에서 벗어나 무질서하고 경계가 모호한 카오스적 공간으로 나아가며 유연적 상호연관성을 기반으로 다의적인 의미를 생성한다. 이러한 표현 특성은 하나의 명료한 의미가 아니라 복합적이고 상대적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와 의미를 내포한다. 또한 정해진 질서와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며 무한히 개방된 형태와 공간구성에

의한 유연성을 지향하고 보는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의미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열린 사고를 추구하는 것이다.

불확정성은 다의적인 미학적 가치를 갖는 열린 개념으로 과거처럼 확고하고 명확함을 추구하는 태도를 버리고 끊임없는 인식의 변화과정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지평을 확대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창조적인 다중 감각적 차원의 사고를 부여함으로써 인간 지능의 상상력을 강화시킨다. 시각의 항상성을 벗어난 조형적 형태는 친숙한 시각적 경험을 벗어난 의도적인 변형을 통한 새롭고 독창적인 효과를 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 나타나는 불확정성의 표현은 포스트모던 사회의 다양성과 다원주의를 보여 주며 이것은 단지 혼란한 상황이 아닌 문화적 제약을 벗어나 역동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다. 더불어 기존의 개념을 초월한 새로운 표현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표현영역을 확장하며 이러한 보다 자유롭고 새로운 표현의 가능성은 많은 미적 가치를 지니게 된다. 또한 다원적으로 분화된 현대 사회의 양상을 능동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서의 불확정적 표현은 이러한 현대 문화의 특성과 현대 패션 트렌드를 보여주는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표현이다. 따라서 불확정성은 오늘날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모호하고 다양한 표현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으로 유용한 가치를 가지며 이러한 불확정적 표현의 다의성은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서의 무한한 창조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상명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References

- An, E. J. (1998). *David Sall's deconstructive strategy*.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 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 Arnheim, R. (1984). *Toward a psychology of art* (J. Y. Kim, Trans.).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66)
- Arnheim, R. (1996). *Art and visual perception* (C. I. Kim, Trans.). Seoul: Mijinsa. (Original work published 1974)
- Aum, K. H. (2004). *A study of development in visual concept of the late modern painting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ong-ik University, Seoul.
- Bae, M. G. (2009). *Artist body*. Seoul: Koreana museum.
- Borrelli, L. (2004). *Fashion illustration next*. London: Thames & Hudson. Ltd.
- Borrelli, L. (2008). *Fashion illustration by fashion designer*. London: Thames & Hudson. Ltd.
- Bradley, F. (2003). *Surrealism* (G. M. Kim, Trans.). Paju: Youlhwadang Publishing. Co. (Original work published 1997)
- Choi, J. H. (2009). The expression of fantastic body in fashion illustration. *Fashion & Textile Research Journal*, 11(6), 867-877.
- Dawber, M. (2007). *Big book of fashion illustration*. Singapore: Batsford.
- Delicatessen. (2005). *Fashionize: The art of fashion illustration*. Modena: Happy Books.
- Derrida, J. (1978). *Writing and difference: force and significa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 Deitch, J. (1992). *Post human*. Lausanne: FAE Musée d'art Contemporain.
- Donga Korean dictionary* 2nd ed. (1995). Seoul: Donga Publishing. Co.
- Fuchs, R. H. (1992). *David Salle drawing*. New York: Gagolian Gallery.
- Glenville, T. (2013). *New icons of fashion illustration*. London: Laurence King Publishing Ltd.
- Han, D. G. (2006). *A study on the planning of art community complex based on the expressional characteristics of indeterminacy*. Unpublished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Seoul.
- Hidalgo, M. R. (2007). *Young fashion designer*. Hong Kong: Taschen.
- Hoenderken, W. (2013). *Mode illustration*. Germany: Arnoldsche art Publisher.
- Hong, S. U. (2007). *Art and science*. Seoul: Ehaksa.
- Hwang, H. J., & Kim, M. J. (2012). A semantic analysis of the indeterminacy in contemporary fash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62(5), 1-15. doi:10.7233/jksc.2012.62.5.001
- Kang, E. J. (2011). *Study on characteristics of space design in digital information age*.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Kim, D. Y. (2006). *A study on de-centered form of visual configuration in contemporary painting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ong-ik University, Seoul.
- Kim, E. Y. (1999). *A study on the indeterminacy of the distinctive expression of contemporary architecture*. Unpublished master's thesis, Yeungnam University, Daegu.
- Kim, S. G. (1988). *Understanding of post structuralism*. Seoul: Minumsa.
- Kim, S. J. (2011). Cyborg image expressed in fashion illustration. *Fashion & Textile Research Journal*, 13(6), 866-876.
- Kim, U. D. (1994). *Post-modernism and post structuralism*. Seoul: Hyunamsa.
- Kim, W. B. (2000). *A study on the design of landscape architecture from a chaos theory's*. Unpublished ma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Seoul.
- Kim, W. G. (1991). *A study on avant-garde theory and scientific paradigm in contemporary architecture desig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ong-ik University, Seoul.
- Kim, W. G., & Yoon, D. K. (1991). A study on the change of scientific paradigm in contemporary architecture(II).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7(1), 101-107.
- Kim, Y. U., & Kim, Y. K. (2000). *Fractal and chaos*. Seoul: Woosung Publication.
- Klantan, B., Ehmann, S., & Meyer, B. (2004). *Wonderland*. Berlin: die Gestalten Verlag.
- 'Lawick et Muller'. (2012, June 2). *eklablog.com*. Retrieved January 3, 2014, from <http://hdaternale.eklablog.fr/actualisation-lawick-et-muller-a46657289>
- Lee, J. H. (1998). *A study on the indeterminacy expressed in the contemporary dres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ook 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 Lee, J. H. (2009). A study on the multi-space method in fashion illustra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 Textiles*, 33(4), 644-654.
- Lee, J. H. (2011). Body modification in fashion illustrations based on the theory of 'Corps sans Organes' of Deleuz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61(9), 27-38.
- Lee, S. S. (2004). *Expression of space through optical illus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Seoul.
- Lee, S. S. (2005a). *Study on the image-virtualization in D. Salle and G. Richte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ong-ik University, Seoul.
- Lee, T. H. (2005b).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hybrid expressions in dépase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okmin University, Seoul.
- Lee, Y. W. (2006). *A study on the indeterminate characteristics of landscape architectur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Seoul.
- Levy, P. (2002). *디지털 시대의 가상현실 [Qu'est-ce que le virtual]* (J. Y. Jean, Trans.). Seoul: Kungree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95)
- Lucie-Smith, E. (1995). *Dictionary of art terms*. New York: Thames & Hudson. Ltd.
- Moon, C. (2003). A study on application of fractal structure on graphic design.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sign Science*, 17(1), 211-220.
- Morris, B. (2007). *Ilustracion de moda*. Barcelona: Art Blume.
- Oh, J. S. (1996). *A study on the indeterminable architecture in after-modernism*.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okmin University, Seoul.
- Park, S. H., & You, Y. S. (2003). The modern perspective in fashion illustra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53(7), 57-68.
- Park, S. Y. (1999). *A study on anamorphosis appeared in visual express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Seoul.
- Park, W. H. (2007). *A study on the viewpoint of indeterminacy as a motive and metamorphosis as the attitude to enable new arrangements in typography*. Unpublished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Seoul.
- Riemschneider, B., & Grosenick, U. (2000). *Art at the turn of the millennium*. Cologne: Taschen.
- 'Robert Gligorov'. (2009, December 27). *google.com*. Retrieved September 18, 2015, from <http://prologue.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omine85&logNo=150077217648>
- Ruhrberg, K., Schneckenburger, M., Fricke, C., & Honnef, K. (2000). *Art of the 20th century*. Cologne: Taschen.
- Shlain, L. (1995). *Art & physics: parallel visions in space, time and light* (J. Y. Kim, Trans.) Seoul: Kukje Publishing. Co. (Original work published 1989)
- Shiner, L. (2003). *Invention of art: a cultural histor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 Sung, K. S. (2004).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fashion expression after the 1990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54(1), 109-123.
- Victionary. (2007a). *Fashion unfolding*. Hong Kong: Viction workshop. Ltd.
- Victionary. (2007b). *Fashion wonderland*. Hong Kong: Viction workshop. Ltd.
- Walton, R., & Cogliantry, J. (2008). *The big book of illustration*. New York: Collins design.
- Wiedemann, J. (2008). *Illustration now*. Hong Kong: Taschen.

(Received 6 April 2015; 1st Revised 29 April 2015;
2nd Revised 6 July 2015; 3rd Revised 10 July 2015;
Accepted 13 July 2015)